

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한 무료 통역 서비스 및 무료 생활 상담 서비스가 오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. 20여 개 외국어의 전문 통역사들이 배치되며, 통역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관련 상담 서비스가 마련됩니다. 이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, 비자, 취업, 주거, 법률, 각종 요금, 자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모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